

특집

서구 불교 의례 연구이론의 탐색

지혜경*

- I. 들어가며
- II. 종교의례 연구 이론
- III. 그림스의 의례 분석틀과 선불교 의례의 분석
- IV. 불교의례 연구에 있어서 의례의 범위
- V. 나가며

요약문

불교의 의례연구는 서구의 의례 연구이론의 발달과 맥을 같이 한다. 그렇기에 서구의 불교의례 연구에 대해서 논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1970년대 이전에는 의례자체보다 의례와 신화, 의례와 사회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 이후부터 의례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의례가 갖는 의미보다는 의례를 구성하는 요소들, 의례를 집행하는 이, 의례 도구, 의례 구성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의례연구의 방향은 의례의 사회적 역사적 의미 연구에서, 의례 전체를 다루는 방향으로 연구범위가 확대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의례 자체를 다루는 연구가 이루어지다보니, 의례에 대한 텍스트보다는 의례행위와 몸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연구 보다는 구체적이고 개별 사례에 집중하는 연구로 나아가고 있다. 종합적으로는 의례의 보편적 특성을 구성하는 거대담론보다는 개별 의례의 독자적 특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연세대학교, 철학연구소, 전문연구원, schaffien@gmail.com

연구 방향의 맥락에서 로날드 그림스는 의례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독특한 여섯 개의 범주를 제시하며 이를 활용해서 기독교적 행위와 선불교의 수행행위를 비교하거나, 선불교의 행위들을 의례로 보아 분석하고 있다. 그가 제시한 여섯 가지 범주는 다섯 가지는 의례화(Ritualization), 예법(Decorum), 예식(Ceremony), 마법(Magic), 전례(Liturgy), 축하의식(Celebration)이다. 다른 학자들이 선불교의 수행행위 속에서 의례라 불릴만한 것에 초점을 맞추어 사례를 분석하고자 했다면, 로버트 샤프는 의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의례의 정의를 새롭게 함으로서 불교의 의례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선불교의 수행행위를 의례에 포함시킬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서구에서의 불교의례 연구는 이처럼 의례 연구의 방향성의 변화에 따라 현재는 개별지역의 의례 행위에 대한 연구, 나아가 불교의 수행을 의례의 하나의 형태로 보고 연구하고 있다. 또한 의례 전체를 다루는 연구가 다각도에서 진행되다 보니, 학제적 연구의 필요성도 점점 더 공감을 얻어가고 있다.

주제어 : 불교 의례, 신화, 사회, 선불교 의례, 수행적 접근

I. 들어가며

불교의 의례 연구는 서구의 의례 연구의 발전과 그 맥을 같이 한다. 근대 이후 모든 학문적 연구가 서구의 방식을 따르고 있기에 의례 연구도 마찬가지로 서구의 의례 이론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며, 그 의례연구의 이론과 방법론이 그대로 불교의례 연구에서도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불교 의례 연구를 위해서는 단지 불교만 떼어 놓고 볼 것이 아니라 기존 의례 연구의 이론과 방법론에 대한 전반적 검토가 필요하다.

의례 연구는 현재 인류학, 종교학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례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의 학제에 제한되지 않는 연구방법론들이 사용되고 있다. 의례의 텍스트 연구를 위한 언어학/문헌학/철학, 의례 역사 연구를 위한 역사학, 의례의 상징들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한 정신분석학과 심리학, 의례에 사용되는 몸짓, 음악, 용품들에 대한 연구를 위한 예술학, 의례의 정치적, 사회적 영향관

계를 연구할 정치학과 사회학, 그리고 각 지역의 특성에 대한 지역학/민속학, 의례의 치유에 대해서 연구할 정신신체 의학이 활용될 수 있다. 이처럼 의례가 가지고 있는 광범위한 연결고리 때문에 의례 연구는 쉽지 않으며, 현재는 학제 간 연구의 필요성도 대두 되고 있다.

불교의례 연구는 의례 연구자 중에서 비교연구를 하며 불교의례를 다루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각 지역과 시대의 연구자가 불교의례 연구를 한다. 자신들의 연구 성향과 관심에 따라 정치 사회학적 관점에서, 상징적 관점에서, 철학적 관점에서 불교의례를 연구한다. 서구 불교의례 연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분야는 선불교의 의례연구이다. 의례를 부정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 선불교를 의례에서 다루기 위해 관련 연구자들은 자신들만의 의례 연구방법론과 의례에 대한 이해를 제안하고 있다.

본 논문은 한국의 불교의례 연구의 기초 토대마련을 위해 기존의 연구이론을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우선 기존의 종교의례에 대한 다양한 연구 이론들을 먼저 살펴보고, 수행적 연구방법에 기반한 로날드 그림스의 선불교 의례 분석과 선불교에서의 의례연구를 뒷받침하는 로버트 샤프의 의례에 대한 확장된 정의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II. 종교의례 연구 이론

의례는 종교와 사회의 기원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신화와 함께 중요하게 연구되었다. 인류학자인 에드워드 타일러(Edward Tylor, 1832-1917)는 종교를 야만인으로부터 문명인으로 발달해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산물로 바라보는 진화론적 입장에서 종교는 세상에 대한 원시인들의 사유인 신화에서 유래했다고 보았다. 구약성서학자인 로버트슨 스미스(Robertson Smith 1846-1894)는 종교와 사회에 있어서 의례의 중요성에 주목한 사람으로 종교는 일련의 행위들과 의례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를 통해 공동체를 만들고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로버트슨의 의례에 대한 이해는 종교와 의례 연구의 두 흐름의 형성에 영향을 끼쳤다. 제임스 프레이저(James Frazer, 1854-1941)는 신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연관된

의례를 먼저 이해해야 함을 주장하였고, 에밀 뒤르켕(Emile Durkheim 1851-1917)은 의례를 사회공동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세상을 표현하고 구현하는 수단으로 보았다.

1970년대 이전의 의례 연구는 의례 자체에 대한 독자적인 연구보다는 의례와 신화와의 관계, 의례의 정신분석학적 의미, 의례와 사회와의 관계 등을 통해 의례가 가진 기능과 의미에 대해 논의 하였습니다.

신화와 의례의 관계에 있어서 프레이저는 의례에 대한 부가적 설명을 위해 신화가 존재하게 되었음을 주장한 반면, 마르첼 엘리아데(Mircea Eliade, 1907-1986)는 종교적 신화 속 상징들을 의례가 재현하는 것으로 보았다. 엘리아데를 중심으로 한 종교현상학자들은 종교를 우연적이고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안정적인 변화를 넘어선 차원을 추구하는 인간의 시도로 보았고, 신화와 의례는 인간 경험 속에서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찾아 제시하고 그 모델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았다.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 1856-1939)는 문명화된 사회가 되기 위해 억압된 인간의 욕망과 죄의식으로 인한 집단적 강박 신경증이 표현된 것을 의례로 보았다.

종교와 의례를 사회적 결집을 도와주는 사회적 현상으로 이해한 뒤르켕의 입장을 수용하여 종교와 의례의 사회적 기능에 주목한 이들은 구조-기능주의(structural functionalism)라 한다. 알프레드 래드클리프브라운(Alfred Radcliffe-Brown, 1881-1955)은 의례 속에 나타난 종교적 신념이 어떤 사회적 구조를 반영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 신념과 질서가 종교의례를 통해 형성, 강화되고 재창조됨을 주장한다. 말리노프스키(Bronislaw Malinowski)는 개인의 정서에 좀더 관심을 가졌는데, 그에 의하면 의례는 개인이 초월자에 대해 의존하고자 싶어하는 감정을 만들어내고, 또한 의례를 통해 개인은 그러한 감정을 표현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 만들어져가는 것이다. 신화나 의례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상징들이 사회구조의 반영이라고 본 뒤르켕과 그 계승자들과 달리, 레비스트로스(Claude Levi-Strauss 1908-1991)는 인간들의 사고가 사회구조를 형성하고, 다양한 상징들을 사회적 관계에 부여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인간이 세상을 쪼개어 인식하고 분류하여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만들어가며,

신화는 이러한 쪼개어 이해하는 과정인 반면 의례는 이를 다시 재구축하여 완전한 상태로 만들어가는 것으로 보았다. 레비스트로스 이전에도 상징적 체계에 대해 생물학적 접근과 언어학적 접근이 시도되었으며, 그 가운데에 언어학적 접근이 학자들에게 설득력있게 수용되었다. 레드클리프브라운과 엘리아데는 의례를 언어구조와 유사하다고 보고 의례와 경전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의례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인류학자인 에드먼드 리치(Edmund Leach, 1910-1989)는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를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레비스트로스가 활용한 언어적 분석을 통해 의례를 분석하였다. 다만, 구조주의자들과 다르게 보편적 구조나 보편적 이상을 거부하고, 개별 사회와 개별문화의 각각의 이상을 인정하며, 의례를 통해 개개인은 스스로 사회질서를 내재화하게 된다고 보았다. 이에 더 나아가 클리포드 기어츠(Clifford Geertz, 1926-2006)는 종교를 하나의 문화체계로 보고, 의례를 통해 이상세계와 실제세계가 하나로 융합되고 두 세계가 하나인 세계임을 확인하게 된다고 보았다.

캐서린 벨(Catherline Bell)은 위와 같은 의례연구의 발전사를 신화적 접근, 사회적 접근, 문화적 접근으로 나누어 소개한 뒤, 1970년대 중반, 문화적 접근법에 기반한 수행적 접근방법(performative approach)과 실천적 접근방법(practice approach)이 여러 이론적 토대들을 바탕으로 형성되었다고 보고 있다. 그녀에 의하면 수행적 접근방법은 의례를 하나의 이벤트, 연극과 유사한 것으로 보며, “틀 짜기(framing),” 정형화된 틀 속에서의 행위를 통해 특정한 의사를 표현한다. 연극을 통해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생각에 영향을 받는 것처럼 의례를 통해서 사람들의 사유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단순히 문화적 가치를 표현하는 것도 아니며 상징적인 각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닌, 사람들의 인식과 해석에서 변화를 가져오는 일련의 행위가 의례라는 것이다.”¹⁾ 그래서 수행적 접근법에서는 의례 행위의 특정한 효과에 관심을 기울인다고 한다. 반면 실천이론은 의례의 특정 행동보다는 행동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더 관심을 가진다. 그래서 의례를 기존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적 필요에 따라 새로운 질서를 유지하는 데에 작용하는 것

1) 벨(2007). p. 156.

으로 본다. 이는 뒤르캥의 기능주의적 관점과 유사하지만, 의례를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인간의 실천”으로 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 접근 방법은 의례를 선형적인 것이 아닌 주어진 문화속의 행동방식으로 보고, 의례가 발생하는 그 장소에서 그 행위를 중심으로 어떻게 의례화되는지 관찰한다. 의례화를 통해 행위자는 성스럽고 초월적인 힘의 권위를 강화한다. 이에 대한 사례로 캐서린 벨은 인류학자인 셰리 오트너 (Sherry Ortner)의 네팔에서 에베레스트 산의 등반가를 돕는 세르파족의 불교 연구를 들고 있다. 벨에 의하면 오트너의 세르파 불교 사찰건립에 대한 연구는 “인간의 실천이 권력관계를 만들어 내고 조정하는 방식을 생생하게 예증하였고, 그 과정에서 따로따로 분리된 의례 행위들에 대한 분석을 위해 매우 유용한 관점 제시해 주었다”고 한다.²⁾

1970년대 이후부터는 수행적 접근법이 의례 연구의 주요이론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수행적 접근법이 의례 자체를 다각도에서 볼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이다. 로널드 그림스(Ronald Grimes)는 수행론적 접근법의 대표적 학자인 테오도르 개스터(Theodor Gaster)와 빅터 터너(Victor Turner), 두 학자의 특징을 비교하면서, 학문적 배경에 따라 이론이 어떻게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그는 이들의 이론을 다음과 같은 <표 1>을 통해서 비교하고 있다.

<표 1> 테오도르 개스터와 빅터 터너 비교표³⁾

	비교 범주	테오도르 개스터	빅터 터너
1	학문 분과	종교학	인류학
2	전공분야	고대 근동지역 (근대 유대교와 종교 역사)	아프리카 (근대 기독교와 종교 역사)
3	영향받은 학자들	제임스 프레이저, 길버트 머레이, 프란시스 콘포드	래드클리프 브라운, 에반스프리지드, 아놀드 판 헤네프
4	비교 문학분야	비교 민속학 (모티브 연구)	비교 상징학 (확장된 사례연구)
5	1차 연구자료	텍스트, 비문, 고고학적 유물	참여자, 관찰자로서 행한 현지조사 자료

2) 벨(2007), p. 167.

6	의례 다루는 맥락	역사적 (유래연구 derivations)	사회문화적 (공변량 연구 covariances)
7	주요 연구 묶음	신화, 의례, 드라마	의례, 상징, 드라마

〈표 1〉 테오도르 개스터와 빅터 터너 비교표(계속)

	비교 범주	테오도르 개스터	빅터 터너
8	의례를 보는 관점	지속적-이상적인 (자연-계절의 순환주기 같은 특성) 것에 대한 정확한 연기(enactment)	문화 발전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분류체계, 범주, 모순들을 변화시키는 공연 (Performance)
9	드라마를 보는 관점	모방적 (모사, 흉내내기) 유희적, 즐거움, 보편적	갈등적, 목적론적, 역할부여, 청중 앞, 수사학적 스타일, 하나의 세트로 구성된 규칙, 클라이막스
10	신화를 보는 관점	이상적-지속적인 것에 대한 나레이션	토착문화의 주석의 일종. 근원에 대해 다루지만, 전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
11	관심가지는 의례의 유형	종합적인 (계절 의례) 전투 대관식 해학극	통과의례 치유, 정화 의례 순례 축제
12	의례 분석 단위	패턴, 행위, 장면(scene)	상징, 변화과정(phase), 사연
13	비교 연구시 분석단위	유형, 패턴	상징
14	사회적 의례 진행과정의 패턴	가사상태 (Mortification) 정화 (purgation) 활성화 (Invigoration) 환희 (Jubilation)	위반 (Breach) 위기 (Crisis) 보상 (Redress) 회복 (Reintegration)
15	산업사회와의 비교	생존 (의미없는 관습/ 연설, 시, 드라마의 모형)	역치적 현상 (축제, 반체제, 혁명, 순례, 예술)
16	역사적 발달과정에 관한 관점	진화론적	정치적-갈등적
17	기본이분법 구도	이상/실재 지속적/ 시기적으로 딱 맞는 신화/의례	구조적/경계적 (liminal) 기념일/의례 위계적/공동체적
18	이론의 근간이 되는 메타포	공간의 (평행, 평면, “토포코즘(topocosm)” “정확한 (punctual)”	시간의 (발전 과정, 사회적 드라마, 되어감, 발달, 성장)
19	신화의 단계	원시적 (Primitive; 직접적인 의례의 반주) 드라마적 (Dramatic; 공연을	비교할 내용 없음

		위한 대본) 전례적 (Liturgical; 예식의 순서에 따른 암송)	
〈표 1〉 테오도르 개스터와 빅터 터너 비교표(계속)			
	비교 범주	테오도르 개스터	빅터 터너
20	숨은 철학적 전제	관념론	경험론 생기론
21	상징의 의미에 단계	비교할 내용 없음	1. 주석적 (Exegetical) 2. 작용적 (Operational) 3. 위치적 (Positional)

종교학적 배경을 가진 개스터와 인류학 배경을 가진 터너의 차이는 기반하는 철학적 입장, 사용하는 자료, 의례를 볼 때 공간적인 측면과 시간적 측면 중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개스터는 이론적이고 연역적 방식을 사용하는 관념론의 철학을 가지고 글로 쓰여진 텍스트, 비문들을 연구한다. 터너는 경험론과 목적론적 관점에서 직접 관찰하고 인터뷰한 자료를 사용한다.

개스터는 의례가 행해지는 공간에 초점을 맞추고 계절적 변화의 패턴을 본따서 만들어진 의례와 신화가 계속 특정 장소에서 반복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의 독특한 개념인 “topocosm”은 특정한 지역을 구성하는 모든 것, 예를 들어 그 장소의 토양, 동물, 과거 현재의 시간들을 모두 통합적인 하나의 유기체로 일컫는데 사용된 개념이다. “punctual”은 계절적 순환주기에 딱 맞는 행위가 있는 것처럼, 다시 삶을 정화하거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시간과 장소에 딱 맞춰서 거행된다는 의미이다. 그가 말하는 사회적 의례의 네 단계는 겨울, 봄, 여름, 가을의 속성에 맞추어져 있음을 볼 수 있다. 가사상태의 단계에서는 금욕, 금식, 자기성찰의 의식을, 정화의 시기에는 그에 맞는 퇴마, 세정식, 불태우는 의례 등을 행한다. 활성화의 시기에는 결합과 생산과 관련된 의례들을, 환희의 시기에는 의례가 완성된 것은 기뻐하는 축제같은 것을 하게 된다. 신화는 이러한 의례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며 그리는 이상적 세계를 기록한 것이다. 신화와 의례는 함께 하는 것

3) Grimes(2010). Loc.3124-3139.

이기에, 평면의 공간에서 평행을 이룬다고 한다. 드라마는 이 둘의 결합에 의해 형성되는 극적인 상태인데, 의례 주체자가 행하는 일종의 역할놀이와 그로 인해 참여자가 이상적 세계를 경험하는 것을 말한다.

터너는 의례의 변화와 흐름 같은 시간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 개스터에게서 의례는 하나의 패턴의 지속적 반복이지만, 터너에게서 의례는 사회적 갈등, 사회적 드라마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행되는 공연이다. 그래서 그의 사회적 의례는 연극의 구성 순서를 따른다. 기존 관행과 일상을 부수고, 이 가운데 길을 잃고 헤매는 위기를 겪고, 참회와 보상의 행위를 통해 다시 관계를 회복하게 된다. 의례는 기존 관습을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길을 잃은 혼란한 경제적 상태(lineal state)에서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구조를 만든다. 사회적 변화에 따라 의례는 갈등을 해결하며 조화와 평화를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기에 문화를 만드는 원천이라 한다. 그래서 터너는 의례를 초역사적으로 보는 것에 반대한다.

이외에 젠더의 문제가 어떻게 의례에 반영되는지에 대해 연구하는 여성주의적 연구, 종교 전례의 역사와 문헌에 대한 전례 연구, 의례의 치유적 측면에 대한 정신분석적 연구를 좀 더 발전시킨 고트하드 부쓰(Gotthard Booth)의 정신신체학이론이 있다.

정리하자면, 다양한 의례의 이론들은 기본적으로 의례를 초월적이고 이상적 세계(성스러운 세계)와 현실세계(세속 세계)간의 연결점이며 화해로 본다. 1970년대 이후부터는 의례연구에 있어서 의례 그 자체에 주목한 수행론적 접근이 중심이론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기존의 다양한 이론들이 불교를 포함한 다양한 종교의례 분석에 함께 활용되고 있다.

Ⅲ. 그림스의 의례 분석들과 선불교 의례의 분석

비록 의례연구에 대한 다양한 이론과 방법론이 있다하더라도, 그것을 적용하여 의례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틀이 있어야 한다. 그림스는 이를 위한 의례를 어떻게 분석하고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 전체적인 구체적 틀을 제시한다. 수행적 접근법에 기반하여 의례자체를 분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한

다. 우선은 의례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기본적 요소들-의례가 발생하는 공간, 의례에 사용되는 물품과 도구들, 의례가 행해지는 시간, 의례에 사용되는 언어와 다양한 소리들, 의례의 참석자, 의례 때 사용되는 행동들-을 확인한다. 그 이후에 다양한 이론들을 활용해서 의례를 해석한다. 그는 이론들을 통해서 시도해볼 수 있는 7가지의 해석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⁴⁾

1. 의례를 현상학적으로 서술해보기- 의례의 주제, 과정, 유형 (Eliade, Van Gennep)
2. 의례 아래 놓여있는 구조들을 파악하기- 상징구조(Geertz), 몸짓의 문법(Bridwhistell), 메타언어(Bateson), 수행적 발화(Austin), 논리(Casirer, Langer), 심층구조 (Levi-Strauss, Leach)
3. 사회적 기능(Durkheim), 함께 변하는 것(Douglas), 발전과정 (Turner), 역할 (Goffman, Schechner) 고려하기
4. 의례가 개인 또는 집단의 심리학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고려하기: 하나의 원형의 묶음(Jung, Neumann), 미로의 길(Wallace), 충동(Freud) 발달단계(Erikson) 게임 (Huizinga, Neale, Caillois)
5. 생태학적(Rappaport), 생물발생학적(d'Aquili) 작용으로 의례를 설명해보기
6. 역사적 신학적으로 의례의 전례와 결과를 추적해보기 (Bouyer, Jungmann)
7. 의례가 현실 삶의 세계(Ricoeur, Gadamer, Palmer) 또는 궁극적 실재 (Tillich, Berger)을 구성하는 방식에 집중해보고, 이를 상상해보고 공감하며 참여해보기

그림스가 정리한 7가지의 해석방법에서 알 수 있듯이, 의례의 분석에는 다양한 분과의 이론이 활용된다. 해석이론은 이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이론을 실험적으로 적용해볼 수 있다. 의례 자체가 종합적이기에 어느 한분과의 접근만 가지고 총체적 설명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그림스는 의례적 행동을 분석해보는 여섯 가지 방식(mode)을 제시한다. 여섯 가지는 의례화(Ritualization), 예법(Decorum), 예식(Ceremony), 마법(Magic), 전례(Liturgy), 축하의식(Celebration)이다. 의례화란 특정 양식을 반복하는 몸짓들을 말한다. 원래는 동물들이 짹짹 같은 반복되는 일련의 몸짓을 설

4) Grimes(2010). loc.1150.

명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나, 그림스는 이를 인간의 계절의 순환과정에 따라 자연과 소통하는 다양한 몸짓들을 일컫는 것으로 확대 적용한다. 예법은 사회생활 속에서 인간과 인간이 관계를 맺으면서 상호간의 적절한 몸짓을 찾는 가운데 발생한 것이다. 예식은 참석자들을 하나의 큰 그룹으로 묶어준다. 예식을 통해서 사람들은 집단이 원하는 바에 적극적으로 참석할 의지를 불태우게 된다. 마법은 효용성을 가지는 의례들, 예를 들어 치유 의례 같은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의례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을 얻게 되었을 때, 이는 마법적이라 할 수 있다. 전례를 통해 참석자는 모두 의례에 적합한 행동을 하고, 의례에 깊이 동참할 수 있게 된다. 궁극적으로 전례는 이 방식이 바로 실재가 존재하는 방식임을 느끼게 한다. 축하의식은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즐거움을 축하하는, 놀이에서 유래한 의례이다. 그래서 의식화는 생존을 위해서 강제된 것이고, 의례는 사회적 관계를 위해 기대된 것이고, 예식 또한 외부에서 요구된 것이고, 마법은 바라는 것이고, 전례는 우주적으로 필요한 것이며, 축하의식은 저절로 그렇게 된 것이라고 그림스는 말한다. 그는 의례화, 예법, 예식, 마법, 전례, 축하의식의 여섯 가지 방식을 북미의 선불교의 수행자들이 하는 행동에 적용하여 분석한다. 그의 분석에 의하면, 숨쉬기는 선의 의례화이며, 절을 하는 것은 선의 예법이며, 경책은 선의 예식이며, 애착은 마법, 좌선은 선의 전례이며, 깨달음은 선의 축하의식이다.

숨쉬기가 선의 의례화로 분석될 수 있는 이유는 선에서의 숨쉬기는 그냥 평상시처럼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숨을 알아차리려고 하고, 놓치고 다시 알아차리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명상에 들어가게 될 때의 호흡과 패턴이 있기 때문이다. 호흡을 코끝이나 단전에 두고 반복하지만, 매 순간 깨어있으면서 숨을 내쉬며 나에게 대한 애착을 놓고, 숨을 들이며 다시 나를 형성한다. 이렇게 우주와 함께하며 반복되지만 언제나 새로운 삶을 살게 한다. 절을 하는 행위가 선수행의 예법인 이유는 큰스님과 다른 수행자들, 불상에 절을 하는 행위를 통해서 타인과 관계 맺고 하나 되기 때문이다. 선불교에는 다른 종교와 달리 국가나 사회 공동체를 결집시키는 예식이 없기에 그림스는 스승과 제자 사이의 위계적 질서와 가르침을 받는 과정에 주목하여 경책을 찾아낸다. 수행자가 요청하였든, 스승이 필요를 느꼈든, 죽비로 제자를 때릴 때는 둘이 서로 다른 존재라는 인식이, 죽비로 맞은

후 합장을 하여 응대할 때는 둘의 대립이 사라지고 하나가 된다. 예식이 갈등과 갈등의 해소하는 과정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처럼 경책의 과정도 두 존재간의 갈등과 이에 대한 해소를 통한 둘의 결합을 가져오는 의식이라는 것이다. 마법의 부분은 선불교에서 찾기 어려운 부분이다. 비록 선의 깨달음의 상태가 신비주의적으로 묘사되어있더라도, 마법과는 거리가 멀다. 이에 그림스는 마법의 핵심적 특징, 마법적 사유는 강한 소망에서 온다는 것에 주목하고,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강한 소망을 마법적 모습이라고 한다. 강한 소망이기 때문에 애착이라 표현한 것이다. 흥미롭게도 그는 경행을 마법적 성향을 가장 잘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일반적으로 경행은 명상 뒤에 따라오는데 그 경행의 첫 발을 내딛는 행위를 통해 다시 일상세계로 돌아온다. 경행은 선불교의 수행자가 행하는 행동들, 예불, 앉기, 일상 행동을 서로 연결시켜주어 차원을 넘나들게 하는 마법적 역할을 한다. 전례는 종교적 체험을 위해 수행자들, 참여자들이 정기적으로 하는 정형화된 행동이기에 좌선을 전례라고 하였다. 좌선은 명상 상태로 들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기 때문이다. 깨달음이 어떤 몸짓이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깨달음의 상태는 다른 종교의 축하의식처럼 즐거움으로 가득차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림스는 여섯 가지 범주를 활용해서 선불교의 의례를 분석하고 있다. 본래 서양에 전달된 선불교는 기존질서를 부정하고, 의례도 부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그림스를 비롯하여 다른 불교 학자들은 선불교에 의례가 있음을 주장하며, 선의 수행법 속에서 의례적 요소를 찾아내어 의미해석을 하고자 했다. 그림스의 방식처럼 의례분석의 범주를 만들고, 각각의 행위를 그 범주에 넣고, 선불교의 의례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이것들을 의례라고 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그래서 로버트 샤프(Robert Sharf)는 의례의 의미를 넓게 규정하며, 그 범위를 확장하였다.

IV. 불교의례 연구에 있어서 의례의 범위

선불교의 수행법을 의례의 범주에 넣기 위해 샤프는 “의례란 어떤 것인가”라는 질문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의례는 반복적이고, 정해진 형식을 가지고 있

기에 규칙적으로 정형화된 사회적 관습들, 정해진 순서대로 진행되는 학회의 발표회, 각 문화권의 공식적인 식사 등도 넓은 의미에서 의례의 영역에서 논의될 수 있다. 물론 종교의례를 논함에 있어서는 종교행위에 제한해서 논하게 된다. 그렇다면, 종교적 의례는 넓은 의미의 의례와 어떻게 다를까? 단지 의례를 주관하는 연행자가 종교리더이기에 종교적 의례일까?

이에 샤프는 정해진 순서를 따르는 공식적 저녁식사와 종교 의례의 차이를 참석자의 자율적 행동 허용 여부와 일상생활과의 연속성 여부에서 찾았다.⁵⁾ 저녁 파티에 참석한 사람과 달리 종교의례의 참석자는 의례에서 지시한대로 말하고 행동해야한다. 종교의례를 구성하는 모든 내용들은 일상의 것들과 다르다. 의례의 장소도 일상의 장소와 다르며, 의례의 주재자는 특별한 옷을 입고, 의례에서 사용되는 음식, 그릇 등은 모두 의례를 위해 특별히 준비된다. 샤프가 지적했듯이 이른바 ‘정화’된 것들을 사용하며 ‘성스러움’을 만들어낸다. 정화와 성스러움은 종교의례를 구성하는 중요요소이다. 신성함을 위해 종교의례에서는 신성한 언어를 사용해왔다. 불교에서는 범어로 된 만트라와 한자로 된 의례문들을, 카톨릭에서는 라틴어가 그 역할을 해왔다. 또한 일상의 자연스러움과 다른 엄격한 격식과 금기는 의례를 신성하게 만들고 의례에 권위를 부여한다. 권위의 힘을 통해 “의례를 사물들의 자연 질서에 결합시킴으로써 의례는 그 지역의 윤리기준과 가치를 정당화 시킨다.”⁶⁾ 이처럼 정형화, 반복성 외에 의례를 종교적 의례로 만드는 것은 일상과의 다름, 거리두기인 것이다.

대부분 불교의례는 다른 종교들처럼 신적 존재의 성스러운 이미지(불상이나 불화)를 예배의 대상으로 삼아 이에 대한 봉헌을 통해서 치유, 구원 등의 초자연적 이익을 얻고자 한다. 그 안에는 당연히 장소와 도구, 의례를 행하는 연행자를 정화하는 의식이 선행되어 일상과 의례를 구별하게 한다. 이같은 불교 의례의 기원을 베다에서 원형을 찾는데, 이는 사실 다른 종교, 예를 들어 한국 무속의 기본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 대승불교의 의례는 공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끌어내

5) Sharf(2005) Loc.3746.

6) Sharf(2005), Loc. 3763.

기 위한 하나의 수행법으로 이해되기도 한다.⁷⁾ 그래서 밀교의 의례에서는 의례의 클라이막스에 이르렀을 때 그 신적 존재의 만트라를 쪼개는 방식으로 신적 존재를 해체하기도 한다.

미국 내에서 불교의례 연구는 분파적으로 화려한 의례를 가지고 있는 밀교 전통이 강하게 남아있는 티벳이나 일본의 불교를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그 외에 중국, 인도, 네팔, 라오스, 태국, 한국 등의 불교의례에 대한 연구가 있다. 그 주제는 의례에 관한 텍스트, 사용되는 만트라, 의례도구, 의례예술, 의례의 사회적 영향관계, 의례 자체에 대한 분석 등이 있다. 미국 내 불교의례 연구에서 흥미로운 점은 선불교의 수행에서 의례적 모습을 찾는다라는 점이다. 스즈키 다이세츠가 미국에 선불교를 전파하였을 때, 선불교는 모든 권위와 형식적 틀을 거부하는 분파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본의 선불교를 직접 수행하며 엄격하게 정형화된 수행법을 접하면서 학자들을 선불교에서 의례의 가능성을 찾았고, 앞서 그림스처럼 의례의 범주로 해석할 수행의 행위들을 분석하였다.

샤프는 이러한 선불교 의례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이론적 배경을 소개하며, 기존의 의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의례를 “암호화된 텍스트” 또는 “하나의 정형화된 행동”으로 분류하였다. 암호화된 텍스트로 규정된 의례 분석에서는 의례의 의미를 알고자 한다. 신화적, 사회학적, 심리학적 이론들을 다양하게 접목하여 인간의 심층심리와 다른 문화를 이해하려고 한다. 의례를 하나의 정형화된 행동으로 볼 때에도 다양한 이론이 적용되지만, 연극이나 드라마를 분석할 때 단지 의미만이 아니라 무대의 구성요소를 하나하나 분석하는 것처럼 의례를 좀 더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한다. 의례하는 사람의 훈련방식이라든지, 사용되는 음악, 의례 내의 몸짓에 대한 세세한 분석들이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다. 그래서 후자의 입장에서는 함축적 의미를 지닌 보편적인 의례들 뿐 아니라 다양한 정형화된 행동들이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선불교의 수행도 의례의 범주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이해 속에서 앞서 그림스는 선불교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몸짓들을 의례로 보고 분석한 것이다.

7) Sharf(2005), Loc. 3922.

선불교에도 의례가 있다는 것을 좀 더 강력하게 주장하기 위해, 샤프는 바이고 츠키의 이론을 끌어와서 의례를 일종의 “어른들의 놀이”라고 보았다. 아이는 어른들과의 의사소통과정을 통해 언어를 배우며 대상과 언어의 연관관계를 인지하고, 대상을 배경으로부터 구분해낸다. 놀이는 눈앞의 대상과 생각을 분리해내고 대상보다는 대상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놀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놀이 과정에서 나무조각이 인형이 되기도 하고, 나무막대가 말이 되기도 한다. 아이는 이렇게 놀이를 통해 자신의 세계 이해방식을 구성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의례는 특별한 형태의 성인의 놀이로 볼 수 있다. 아이의 놀이와 의례가 다른 것은 언어에 해당하는 대상을 다른 것으로 바꾼 것이 아니라, 대상 자체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이다.

“의례는 놀이처럼 변형된 대상의 상징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대상 자체에 대한 인지 또는 유래라 할 수 있다. 어떤 이는 밀떡을 예수의 몸으로 받아들이고, 무당의 목소리를 조상의 목소리인 것처럼 듣거나, 돌을 신의 몸으로 숭배하거나, 의례장소에 들어가는 것을 정토에 들어가듯이 하거나, 좌선하기 위해 앉은 것을 깨달은 붓다인 것처럼 여긴다.”⁸⁾

의례를 통해 일상의 것들은 초월적 세계의 것으로 변화한다. 밀떡은 예수의 몸이 되고, 무당의 목소리는 조상의 목소리로 인식된다. 하지만 아이들의 나무막대기와 말이 본질적인 연관성이 없는 아이들의 자의적 연결인 반면, 종교의례의 것들은 대상이 그 지시하는 바의 본질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밀떡이 진짜 신성한 예수의 몸이라 믿을 수 있고, 좌선하기 위해 앉아있는 수행자가 깨달은 붓다인 것인 양 믿을 수 있다. 놀이이론은 의례의 모든 요소들을 성스러운 초월적 세계를 새로 구성하여 이를 실재로 현현하는 것으로 본다. 이로써 선불교의 행위들도 이러한 초월적 깨달음의 세계를 구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샤프는 동아시아 불교는 의례와 명상에 대한 정확한 구분이 없다고 보고, 수행은 단지 마음은 상태가 아니라 작은 디테일까지 기록된 고도로 형식화된 과

8) Sharf(2005) Loc. 3900.

정으로 보았다.⁹⁾

선불교의 의례는 불교의 의례의 하나의 형태이며, 선의 깨달음은 선의 의례 속에서 의례를 통해서 구성된다. 예를 들어 큰스님은 살아있는 붓다이며, 제자들은 그에게 절을 하고 예를 갖추고, 붓다의 역할을 하는 큰스님은 공적이든 사적 영역에서 제자들과 정형화된 대화들을 나눈다. 이를 통해 큰스님이 계신 곳은 붓다의 장소가 되며, 그가 설법하는 법당은 붓다의 장소가 된다. 의례는 이처럼, 눈앞에 보이는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샤프는 말한다.

“의례적 행위는 자연세계를 바꾸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심리적 존재인 인간의 세계에 대한 인지적, 감정적 관계를 바꾸는 것이다.”¹⁰⁾

불교의 명상수행은 대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대상에 대한 나의 마음, 나의 관점을 알아채고, 대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선불교의 깨달음도 마찬가지이다. 내 눈앞에 보이는 대상세계 자체에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대상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나와 세계가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한다. 샤프의 의례에 대한 논의는 불교의 의례 연구의 범위를 선불교의 수행으로까지 확대하게 한다. 의례는 신적존재에게 은총을 구하는 단순히 정형화된 반복적 행위가 아니라, 일상과 거리두기를 만들고, 초월의 세계를 우리 삶 속에 구현하는 행위이다. 그런 맥락에서 선불교의 수행 또한 단지 수행이 아니라 의례가 되어 의례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V. 나가며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종교의례는 종교와 사회의 기원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신화와 의례의 관계, 사회와 의례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시작하였다. 이 때는 의례 그 자체에 대한 연구보다는 의례가 갖는 의미를 신화와 사회의 관계 속에서

9) Sharf(2005) Loc. 4019.

10) Sharf(2005) Loc. 3779.

검토하고자 했다. 의례와 신화 중 어느 것이 근본적인 것이냐에 따라서 신화를 의례를 설명하기 이야기로 보거나 신화 속 상징을 의례가 정형화 시켜 반복하는 행위로 보았다. 의례의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의 도덕적 신념 등을 주입시키고, 사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거나, 프로이트의 관점을 따라 문명인이 되기 위해 본능을 억압하다 생겨난 신경증의 하나의 증상으로 보기도 했다. 1970년대부터는 의례가 갖는 의미보다는 의례 자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의례가 갖는 의미보다는 의례를 구성하는 요소들, 의례를 집행하는 이, 의례 도구, 의례 구성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를 뺀 의례에 대한 문화적 접근이라고 불렀다. 의례를 연극과 같은 종합예술로 보고, 다각도에서 분석한다. 의례의 분석은 연구자가 속한 학문적 배경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종교학과 연구자가 인류학 연구자보다는 좀 더 이론적인 기반에서 출발하며, 인류학 연구자는 직접적으로 의례를 관찰하고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의례 연구를 행한다. 1차적 분석 이후에 사회적, 신화-상징적, 심리학적 의미를 찾는 작업을 진행한다. 이러한 의례연구의 이론과 방법은 불교 의례 연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의례연구의 방향은 의례의 사회적 역사적 의미 연구에서, 의례 전체를 다루는 방향으로 연구범위가 확대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의례 자체를 다루는 연구가 이루어지다보니, 의례에 대한 텍스트보다는 의례행위와 몸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연구 보다는 구체적이고 개별 사례에 집중하는 연구로 나아가고 있다. 종합적으로는 의례의 보편적 특성을 구성하는 거대담론보다는 개별 의례의 독자적 특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 방향의 맥락에서 그림스는 의례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독특한 여섯 개의 범주를 제시하며 이를 활용해서 기독교적 행위와 선불교의 수행행위를 비교하거나, 선불교의 행위들을 의례로 보아 분석하고 있다. 그가 제시한 여섯 가지 범주는 다섯 가지는 의례화(Ritualization), 예법(Decorum), 예식(Ceremony), 마법(Magic), 전례(Liturgy), 축하의식(Celebration)이다. 그는 이 여섯 가지 범주를 북미의 선불교의 수행자들이 하는 행동에 적용하여 분석한다. 그의 분석에 의하면, 숨쉬기는 선의 의례화이며, 절을 하는 것은 선의 예법이며, 경책은 선의 예

식이며, 애착은 마법, 좌선은 선의 전례이며, 깨달음은 선의 축하의식이다.

다른 학자들이 선불교의 수행행위 속에서 의례라 불릴만한 것에 초점을 맞추어 사례를 분석하고자 했다면, 샤프는 의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의례의 정의를 새롭게 함으로서 불교의 의례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선불교의 수행행위를 의례에 포함시킬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일반적으로 의례는 성(聖)과 속(俗), 이상세계와 현실세계, 신성한 존재와 인간, 초월적 세계라는 이분법적 구도에서 두 세계 간의 화해와 결합을 위해 의례를 행한다 보았으나, 그는 의례가 오히려 일상세계와 초월세계를 분리시키는 역할을 하고, 바로 그 역할이 다른 의례들과의 차별성을 야기한다고 보았다. 이 정의 하에서 선불교는 일상세계와 다른 초월세계로 분리하고, 인간을 초월세계로 이끄는 의례의 하나의 종류로 볼 수 있게 된다.

서구에서의 불교의례 연구는 이처럼 의례 연구의 방향성의 변화에 따라 현재는 개별지역의 의례 행위에 대한 연구, 나아가 불교의 수행을 의례의 하나의 형태로 보고 연구하고 있다. 또한 의례 전체를 다루는 연구가 다각도에서 진행되다 보니, 학제적 연구의 필요성도 점점 더 공감을 얻어가고 있다.

참고문헌(References)

- 캐서린 벨 (2007). 『의례의 이해-의례를 보는 관점과 의례의 차원들』. 류성민 역. 오산: 한신대학교 출판부. [Bell, Chatherine (1997). *Ritual Perspective and Dimens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로이 라파포트 (2007). 『인류를 만든 의례와 종교』. 강대훈 역. 서울: 황소걸음. [Rappaport, Roy (1999). *Ritual and Religions in the making of Human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ell, Chatherine (1995). *Ritual Theory, Ritual Practi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Kindle Edition)
- Grimes, Ronald (2010). *Beginnings in Ritual Studies*. 1st ed. 1982; reprint; Scotts Valley California; Createspace independent Publishing platform. (Kindle Edition) 인용시 페이지 번호 대신에 킨들의 location 번호 사용.
- Grimes, Ronald (2013). *The Craft of Ritual Studi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Kindle Edition)
- Sharf, Robert (2005). “ritual.” *Critical Terms for the Study of Buddhism*. (Lopez Jr, Donald 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Kindle Edition) 인용시 페이지 번호 대신에 킨들의 location 번호 사용.
- 송현주. “종교에서 의례의 의미와 기능”, 불교평론 2013년 6월 19일자. <http://www.budreview.com/news/articleView.html?idxno=1285>. 2020.5.15. 검색 Interdisciplinary Approaches to the Study of Buddhist Ritual

ABSTRACT

Overview on the Buddhist Ritual Studies in the West

Lucy Hyekyung Jee

Yonsei University, Humanities Research Center Researcher.

This article introduces the discourse of the Buddhist ritual studies in the west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Buddhist ritual studies in Korea. Buddhist ritual studies are closely connected to the development of ritual studies in the west, so this article begins with the theories of ritual studies. The direction of the ritual studies changes from digging into the unrevealed meaning of the ritual to study ritual itself as a kind of performance. As Robert Sharf indicated, scholars now first ask what & how people do in ritual rather than its meaning. In addition, the scholars focus more on studying individual rituals than finding common characteristics of all rituals.

In this context, Buddhist ritual studies also focus more on ritual action, then spontaneously it flows to look for the ritual elements in Zen Buddhism. Ronald Grimes uses his six modes - Ritualization, Decorum, Ceremony, Magic, Liturgy, Celebration- to analyze Zen practice actions such as breathing, bowing, hitting, clinging, sitting, enlightenment. Robert Sharf defines ritual in a broad way to embrace the Zen practice action into the ritual. With those efforts, Buddhist ritual studies in the west can study more subjects in ritual studies.

Keywords : Buddhist ritual, Zen ritual, performative approach, myth, society

투고 일자: 2020년 07월 14일

심사 완료: 2020년 08월 10일

게재 확정: 2020년 08월 13일